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 마음을 지키는 성도 성경: 마가복음 7장18-23절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독질과 살인과

22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막 7:18-23)

과거에는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폭군에 의한 억압등이 인류를 심판하고 괴롭힘. (현재는 암, 성인병, 교통사고, 경제적 파산, 우울증, 분열, 갈등, 관계 단절 등이 인류를 심판하고 괴롭히고 있다.)

현대는 과거의 괴물들이 현저히 후퇴한 것이 사실.

천재지변이 없어지지 않는 않았어도 치수와 문명의 발달로 많이 잡혀져 가고 있음.

전쟁도 세계 1,2차 대전 이후로는 대규모 살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테러와 마약과의 전쟁이 중심주제가 되어가고 있음.

전염병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사상자의 숫자는 현저히 줄었음.

폭군들도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피해자도 과거에 비해 많지 않음.

그러나 그렇다고 마귀의 도구들이 사라진 것은 아님.

-그리고 과거의 위협요소들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여전히 경계해야 함.

방법만 다를 뿐 여전히 죄라는 똑같은 형식으로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있음.

사람들은 여전히 개인별로, 가족별로, 사회 단위나 국가 단위로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야 함.

-마귀의 공격으로 (주로 마음속에 거짓을 심어줌으로) 소중한 것들이 변질되고 있음. 앞으로 인류는 마약과 포르노산업을 막지 못하면 치루어야 할 댓가가 너무 클 것이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이들은 대부분 마약과 포르노에 그 영혼을 저당잡히게 될 것이다. 마귀가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독일인과 유럽인들에게 집어 넣은 것처럼.

현대는 과거와 같은 무식한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

에텐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인류를 계속 속여 왔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인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된다.

인간의 적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라는 것을.

여전히 지금도 마귀는 인간들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 주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생각을 지켜야 한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영혼을 지키자! 마음을 지키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에 동의 한다는 것만으로는 결코 올바른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연구하고 검증했다고 해도 내 생각이 가장 올바른 생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막10:18)

-오늘은 내 생각이 가장 훌륭한 생각으로 여겨지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바뀌게 마련이고, 마귀는 반드시 그 훌륭한 생각을 공격해서 율법화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예;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라(추수는 일이므로) - 안식일에는 풀밭으로 걸어가지 말라(걷다가 추수하므로)
->율법화 진행 - 결국 사람을 위한 안식일이 아닌, 율법을 위한 안식일이 되어버림. 안식일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함. 안식일은 일을 쉽스로 육체노동에서 벗어나는 해방의 날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을 공부하며,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영적인 일을 행하는 날이라는 안식일 본래의 정신을 오늘 성실하게 행하면 됨. 기독교는 주일을 강조함. 안식일에 안식하며, 주일에는 주의 날이니 주의 일을 행함. 전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이웃을 섬기며,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면서 지냄. 이 날은 쉬는 날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는 날.)

-돈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 돈은 좋은 것인데, 말 그대로 통화의 도구일 때 그렇다. 그런데 돈이 부를 쌓는 도구가 되고, 투기의 도구가 될 때 돈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을 부를 쌓아놓는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니 돈이 굳어 버리는 현상이 생겼고, 땅을 부를 쌓는 도구가 되지 못하게 하는 세금을 물리자, 이제는 땅까지 얼어붙어 버려 지금까지 녹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시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이 비뚤어졌다.)

-교육에 대한 건강하지 못한 생각. 초등, 중등, 고등교육은 각각 그 목적이 다르다. 특히 고등교육은 직업교육이 되어야 하고, 대학교육은 엘리트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돈 버는 도구로 여겼다. 교육자체도 율법화가 심각해서 산업현장에서 별로 소용되지 않는 교육, 자신의 전공과는 상관없는 취업등이 비일비재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하지만, 열매는 맺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 시책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교육에 대한 생각이 비틀어졌다.)

-이처럼 생각과 윤리의 율법화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율법화가 심해 질수록 삶의 질은 떨어지고 행복지수는 낮아진다. 문명은 발전하지만, 소망은 멎고, 열정은 꺼지고, 마음은 무겁다.

-원인은 사실 전체 국민들의 생각 속에 들어있는 마귀의 거짓말에 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건강한 생각으로 마귀의 거짓말을 물리쳐야 한다.

-분명히 우리는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며, 더 편리한 삶과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예전보다 더 우울하고, 인정은 더 매 말라 있으며, 주머니는 비어 있으며, 여유는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원망하기 시작했으며, 이 원망은 더욱 거세게 변지고 있다.

-STOP! 여기서 멈춰야 한다.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이상 마귀의 유혹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개인의 영혼이 산다. 성경을 읽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가정이 산다. 기도하자. 자녀를 위해서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일터가 산다. 마귀를 대적하자. 영적전쟁은 생각전쟁이다.

-원망과 분열에서 벗어나야 나라가 산다. 기뻐하고 감사하자.

-그러기 위해서 주일을 하나님께 헌신하면 가장 좋다. 주일을 성수하자. 아멘.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하고, 삶은 풍요로워지며, 마음은 보람으로 가득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하는 것이다.

군중들의 생각에 대한 불편한 진실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마귀를 물리치는 전문기관 말씀:사도행전
16장16-34절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7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
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
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여중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불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 갔다가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
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
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
라

26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
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30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31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행16:16-34)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것은 기본.

복음은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복음만이 영혼을 살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에덴동산 이야기는 모든 인류가 가장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쉽다고 약한게 아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죄를 짓는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나라나 독재자가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게 아니라, 죄가 나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닌, 쌓인 힘, 적당하게 좋은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애쓸 때 내가 아닌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죄가 비록 강하나, 오직 죄를 해결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답을 해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 하나님은 결코 나를 방관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듯 이

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이다. 내 직업이 무엇이든...

-죄는 결코 강압하거나, 정죄적이거나, 오만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하면 싫어하는 줄 아니까. 그래서 다정하게, 유혹하듯이, 친구처럼 다가온다.

-복음도 다정하고 진실하게, 정말 좋은 소식으로 다가가야 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곧 그의 유혹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교회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전문기관.

-왜냐면 오직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 교회임.

-교회의 정체성은 그러므로 복음에 있다.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마귀가 굴복한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오직 진리의 성령이시다.

-마귀의 공격은 반드시 거짓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그를 대적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내 속에 마귀가 살고 있어도 두려워 말라. 그는 거짓으로 만든 집에 거하고 있을 뿐이므로,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의 집을 지으면 그는 쫓겨간다.

-의도적으로 예언적으로 그를 축귀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를 축귀해도 그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그는 다시 들어온다. 그러므로 그의 집을 파쇄하는데 힘을 쏟으라.

-고난 가운데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마귀를 대적하라!

-가장 강력한 공격은 전도이다.

-예배가 가장 크게 전도한다.

-셀 모임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체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제자를 양육하라.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없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며, 자녀문제가 사라지며, 마침내 형통하게 된다~!

